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 자사주 매입을 통한 책임경영 실천

- ▶ 10 월, 11 월 두 달간 총 65 만주, 101 억원 규모 자사주 취득
- ▶ 시장에서 적정 기업가치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22-11-09] 웨어러블 인솔린 펌프 전문기업 이오플로우(KQ.294090)의 김재진 대표이사가 최근 자사주 9 만주를 취득했다고 9 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지난 11 월 2 일 장내매입을 통해 자사주 9 만 4170 주를 신규로 취득했다. 취득가액 총액은 약 16 억원이다. 이를 반영하면 김재진 대표이사가 보유한 주식의 수는 총 564 만 680 주로, 보유비율은 18.61%로 확대됐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 일 한국투자증권과 200 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김 대표는 이를 활용해 지난 10 월~11 월 두 달간 자사주 매입을 진행했다. 매입한 자사주는 총 64 만 6012 주로 약 101 억원 규모다.

회사 측은 김 대표의 지속적인 지분 확대는 책임경영에 대한 반증이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자사주 취득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결정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회사의 자기 자금이 아닌 대표이사 개인 자금으로 지속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대표이사의 회사 성장에 대한 자신감이라는 평가다. 회사 관계자는 향후 회사 자금을 통한 자사주 취득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오플로우 김재진 대표이사는 "최대주주로서 회사 주식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돼 있는 지금이 매우 좋은 매입 기회라고 판단했다. 지난 수 년간 인솔린 관련 시장의 판도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고, 그 방향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 최근 나스닥의 관련주 주가 흐름을 보면 선진 시장에서는 이미 패치펌프, 그것도 일회용 패치펌프가 아니면 앞으로 펌프 업체로서의 사업전망이 어둡다는 결론을 내린 듯하다. 우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의 절대 다수가 우리 제품을 재구매하면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증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미국의 한 개 경쟁사를 제외하면 이미 사용자를 수백명 이상 확보하고 연 수백만개의 펌프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스마트 패치펌프 업체도 우리밖에 없다. 우리 이오플로우가 현재 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타고 있는 가장 준비가 잘 된 회사라고 생각한다. 최근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를 높이는 목적이 크지만, 이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고 소견을 밝혔다.

※ 자료 문의: ir.pr@eoflow.com

※ 본 자료는 미래에 대한 예측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 정보는 이미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위험과 시장 상황, 기타 불명확한 사정 또는 당초 예상하였던 사정의 변경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이에 기재되거나 암시된 내용과 실제 결과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장 환경의 변화와 전략 수정 등에 따라 예고 없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립니다.